

호남 반도체 생태계 출범 선언

전북대, 전남대와 26일 ‘호남 광역권 반도체 포럼’ 개최
취업페스티벌과 병행... 30여개 기업 참여 산업 연결 본격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오는 26일 전주 덕메이호텔에서 지자체·연구기관·기업을 총망라한 ‘호남광역권 반도체 포럼 &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행사는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사업단장 김진수)의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장하고, 범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출범을 공식화하는 시작된다. 대학과 지자체, 연구소, 산업체 등이 동시에 만나는 광역권 규모의 반도체 협력 플랫폼이 가동되는 것이다.

두 대학은 2023년 교육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동반성장형에 선정된 뒤, 국비 340억 원과 지자체 대응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융합전공’ 신설과 실무 중심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메모리·센서 트랙을 구축하며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주시, 반도체 협회, 반도체 산업체, 반도체 연구소, 30여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업체 관계자, 전북대·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관계자 및 반도체융합전공 참여 학생 등이 참여한다.

‘호남광역권 과학기술산업에서 반도체의 역할과 기여’를 주제로 기조연설과 패널토론이 이어지며, 특히 산업계·지자체·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호남광역권 반도체 협의체’ 구성 논의가 공식화된다.

또한 제1차 호남광역권 반도체 산·학·연 컨퍼런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

업,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산학연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대규모 취업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이날 오후부터 3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해 1:1 채용 상담과 직무 설명, 모의면접, 연구소(KIST·ETRI·광기솔루션) 상담, 대학원 진학 컨설팅 등 폭넓은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되는 기회도 제공된다.

김진수 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는 호남 광역권 대학과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시작점”이라며 “거점대학과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광역 협력 모델을 만들고 공고히 해 교육과 산업을 잇는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22일 이틀간 무주 드림연수원에서 '2025년 세계시민 캠프'를 운영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생해외연수 성과 공유로 지속성장 동력 확보

전북교육청, 무주 드림연수원서 ‘2025년 세계시민 캠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22일 이틀간 무주 드림연수원에서 ‘2025년 세계시민 캠프’를 운영했다.

‘세상을 향한 도전과 성장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지난 2023~2025년 학생해외연수 참여자 및 인솔교사 3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최태성 한국사 교사 초청 강연, 해외연수 성과공유 멘토링 및 토론 활동 등이 이뤄졌다.

최태성 강사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연결해 학생들의 진로와 삶의 태도

에 동기를 부여하는 강의 내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연수 참가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20개 모둠으로 나뉘 해외연수를 통한 스스로의 성장과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 등도 제안했다.

특히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학교 원픽’ 입상자 및 캠프 참가자들의 문화예술 공연, 해외연수 참가자들이 들려주는 릴레이 강연을 진행해 학생 간의 소통과 협동심을 높였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해외연수 때의 경험을 비슷한 꿈을 가진 선·후배들과 공유하며 나의 성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태성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세계시민 의식을 역사적 사실과 연결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양성과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캠프는 연수 이후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선·후배 연수자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프에서 공유된 다양한 성과를 학교 현장과 연계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3월 1일자
정기인사 위한 인사업무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2026년 3월 1일자 정기인사 추진을 위한 중등교원 인사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기인사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된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자녀 양육 정보 가산점 확대 △장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우선전보 신설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로 인사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은 전북교육의 신뢰도를 공고히 하고 민주적인 교육문화를 정착하는 주춧돌”이라며 “교육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인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이공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선정

총 4명... 국가 감염병 대응·생명공학 연구 거점 재확인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소장 김중훈) 소속 대학원생 4명이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공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수한 박사과정생에게 자율적인 연구 수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다운 석·박사통합과정생(지도교수 강준구)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바이러스(SFTSV)의 NP 항원이 유도하는 면역기전 규명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해당 연구는 SFTSV 감염 시 숙주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기전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아네스 박사과정생과 이찬희 석·박사통합과정생(지도교수 이정운)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벡터 기술

의 고도화를 연구한다. 박아네스 학생은 맞춤형 E1 유전자 발현 세포주를 개발해 바이러스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찬희 학생은 아데노바이러스 E4orf1 유전자의 생물학적 기능을 규명해 차세대 백신 플랫폼의 질적 향상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최다인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정병훈)은 프리온 질환에서 Ferroptosis 및 Cuproptosi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세포사멸 기전 규명 연구로 주목받았다. 이 연구는 기존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치료 표적 발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대 연구소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인 연구비와 자율적 연구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감염병 대응과 보건안보, 생명공학 분야의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24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음주운전·성비위 근절 서약식이 진행됐다.

‘음주운전·성비위 근절’ 실천한다

전북대, 출근길 근절 캠페인 전개... 공식 서약식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음주운전 및 성비위 근절’ 실천을 선언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출근길 캠페인부터 공식 서약까지 진행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를 확립하자는 다짐을 전 구성원에게 알렸다.

캠페인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문과 서문, 북문 등 주요 출입구 세 곳에서 양오봉 총장과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음주운전 및 성비위 근절을 안내하는 리플렛과 핫팩 총 1,500개가 배부됐고, 구성원 스스로 안전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캠페인 이후 오전 9시에는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음주운전·성비위 근절 서약식이 진행됐다.

양오봉 총장으 비롯한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현 교학

부총장이 대표로 서약문을 낭독하는 등 모든 보직자가 대학 차원의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서약서에는 음주 후 운전 및 속치 운전 자제, 음주운전 방조 금지, 성희롱·성폭력 등 모든 성비위 행위 금지, 구성원 간 존중과 차별적 언행 지양, 예방교육 참여 등 대학 구성원의 책무를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양오봉 총장은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며, 이는 대학의 신뢰와 공동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전북대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갈 때 대학이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청렴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마을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작은도서관-학교도서관 연계”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계한 마을교육돌봄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천 교수는 “작은도서관이 가진 힘은 결코 작지 않다”며 “작은도서관이 활기를 얻어야 지역의 미래 역시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이므로 비록 교육청 소관 기관은 아닐지라도 책임감을 갖고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에는 공사립 포함, 현재 369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이 공간들은 우리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의 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채워주는 생활 속 배움터다. 아파트 단지 사이, 마을회관 옆, 주민센터 공간 등 늘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이기



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특히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방과 후 바로 들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운영자나 사서 선생님과 얼굴을 익히며 쌓는 친밀감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배움에 대한 동기까지 만들어 준다.

이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독서모임, 작은 강연, 그림책 활동, 음악 감상회, 책임교육 수업 등 문화와 예술, 그리고 학습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마을 문화 공간이자 배움터다. 이웃이 만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지역문화가 싹트는 가장 가까운 장소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교육자원이므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장소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영역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작은도서관과 협력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독서·문화 활동을 함께 기획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흐름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교육생태계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교육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과 돌봄은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교육청이 작은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독서·학습 활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 운영자, 그리고 지역의 여러 교육 주체들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자원과 작은도서관을 연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돌봄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달 19일까지 총 952곳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19일까지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생교육시설까지 총 952개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시설물에 대해 자체 점검 후 겨울철 재해취약시설(구조안전취약시설 D등급), 붕괴취약시설(축대·옹벽·비탈면), 폭설취약시설(특수구조 지붕 강당·체육관), 화재취약시설(실습실·기숙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

가와 기술적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도 이뤄진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각 시정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다.

중대한 결함, 붕괴, 전도위험 등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통해 사용 제한 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C등급 건축물 중 개축이나 리모델링, 내진보강사업이 이뤄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동현 전북대 연구조교수
국제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스마트팜학과 김동현 연구조교수가 최근 일본 모리오카에서 열린 2025 PAWEES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Young Professional Award’를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과 물 환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신진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학문적 역량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PAWEES(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addy and Water Environment Engineering)는 논·수리·관개 및 농업환경 분야의 학문적 교류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목표로 2003년 설립된 국제학회다.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농업환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동현 연구조교수는 전북대 지역건설공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스마트팜학과에서 재직 중이다. 연구를 통해 토양수분 기반 관개 기술과 수리모델링을 결합해 농업 생산성과 관개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정밀농업형 물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성과는 농업수자원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IF 6.5, JCR 상위 2%) 최신포에 게재됐다. 이 외에도 PAWE, Agricultural Systems 등 다수의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밀 물관리 기술과 디지털 농업 모델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이경재 전주대 교수
서울송파도서관서 인문학 특강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금융보험학과 이경재 교수(전, 경영대학장)가 서울송파도서관 송파도서관에서 ‘시 쓰는 경제학자의 유쾌한 인문학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특강은 2025년 가을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왕 초보를 위한 ‘나도 시인’에 이어 21일에는 ‘시와 함께하는 치유와 행복의 인문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를 시인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누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시를 쓸 수 있으며, 시를 통해 치유와 행복의 삶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경영학과, 시몬스
팩토리룸 현장 탐방 나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경영학과 학생 25명이 지난 21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시몬스 팩토리룸을 탐방했다.

이 프로그램은 RISE 특성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수면 과학 기반 웰니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Well-tech 분야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축구장 10배 규모의 시몬스 팩토리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면 연구 R&D센터를 견학하며, 롤링 테스트, 낙하 충격 테스트 등 국가 공인 기준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체험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세밀 마케팅을 활용한 수면 환경 연구와 감성과학 분석실의 데이터 기반 제품 개발 과정을 통해 현대 웰니스 산업의 과학기술 융합을 학습했다.

이와 함께 자체 생산 시스템과 직배송 시스템을 견학하며 품질과 품질관리를 강조하는 시몬스의 제조 혁신 사례를 배웠고, 시몬스 테라스에서 ESG 경영과 지역사회 상생 모델도 체험했다.

/장은성 기자